

# 저작권 바로 알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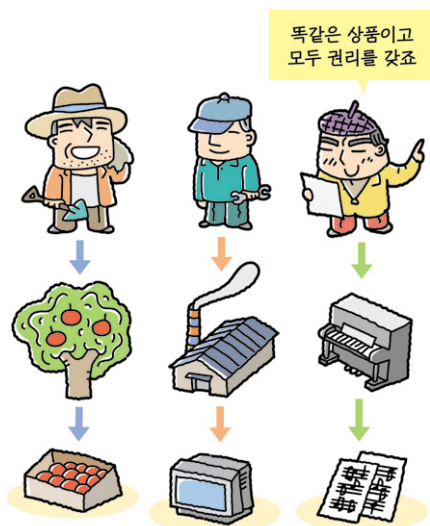


## 저작권 바로 알기

자료 제공 문화관광부

### ▶ 저작권이란?

▶ 저작권이란 소설가가 소설을 쓰고, 작곡가가 음악을 만들어 내고, 게임 개발자가 게임 프로그램을 제작하듯이 문화나 기술 전반에 있어 누군가의 ‘창작’ 행위로 만들어진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텔레비전을 살 때에는 값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화를 볼 때에도, 그 영화를 만들어낸 사람들에게 텔레비전을 사는 것과 똑같이 돈을 내야 합니다. 결국, 저작권이란 어떤 문화상품이든 그 문화상품을 만든 사람들이 가지는 권리입니다.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뉘며,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아래와 같은 권리로 세분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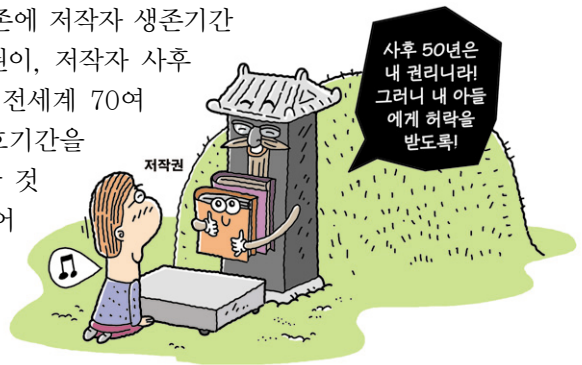


- **복제권** : 인쇄 · 사진 등의 방법에 의한 고정 또는 유형물로 다시 제작할 수 있는 권리
- **공연권** : 상연 · 연주 · 가창 등의 방법으로 공중에서 공개할 수 있는 권리
- **전시권** : 미술저작물 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수 있는 권리
- **배포권** :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일반 공중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있는 권리
- **방송권** :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이나 영상을 송신할 수 있는 권리
- **전송권** :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권리
- **대여권** : 배포 중 점유 이전을 수반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권리
- **2차적저작물작성권** :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 제작 등의 방법 등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저작권 법 · 제도 변화

- ▶ 지난 4월 한미FTA 체결에 따라, 우리 저작권 보호 제도에도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 **저작권 보호기간이 연장됩니다** : 기존에 저작자 생존기간 및 사후 50년까지만 보호되던 저작권이, 저작자 사후 70년까지로 20년 연장됩니다. 이는 전세계 70여 개 국에서 저작자 사후 70년의 보호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국제적 추세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만,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우리 산업에 미칠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였습니다.



- **일시적 저장에 대해 복제권이 인정됩니다** : 음악 파일이나 동영상 등, 디지털 저작물을 이용하게 되면 컴퓨터의 메모리(RAM: 전원을 끄면 기억되어 있던 데이터가 지워지는 휘발성 메모리)에 일시적으로 저장되지만, 전원을 끄면 사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를 가리켜 일시적 저장이라 부릅니다. 일시적 저장에 대해 복제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저작권자의 동의 하에만 일시적 저장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한미 FTA 협정문에서는, 인터넷 정보검색과 같이 통상적인 저작물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공정이용'의 예외를 명시하였습니다. 공정이용이란,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재판, 행정, 학술 연구 등의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따라서 한미 FTA 협상 결과 때문에 인터넷 검색의 제약을 받지는 않습니다.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에 함부로 접근해서는 안됩니다** : 음악이나 그림과 같은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 암호를 입력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암호는 저작물에 대해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차단장치 역할을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암호를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라 부릅니다. 한미 FTA 협상 결과에 따르면,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금지하고, 이를 어길 때에는 벌금 등의 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디지털 시대에 있어서 저작물에 대한 '접근' 그 자체를 통제할 필요가 매우 커졌기 때문입니다.
- **비친고죄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 비친고죄란, 권리자의 고소 없이 처벌할 수 있는 죄를 의미합니다. 한미 FTA 협정문에 따르면, 상업적 규모의 저작권 침해가 일어난 경우에 권리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업적 규모의 저작권 침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의 저작물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규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의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집니다** : 우리가 흔히 접하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일컬어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라고 합니다. 한미 FTA 협상 결과에 따르면,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당한 권리자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저작권 침해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성명, 주소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영화 녹화가 금지됩니다** : 영화관 또는 영화가 상영되는 시설에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영화를 녹화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상영 영화를 몰래 촬영하기 때문에 우리 영화산업이 큰 피해를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 ▶ 학생들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대표적 유형

- ▶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주의해야 할 저작권 침해를 몇 가지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다음의 행동을 했을 경우에는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음악파일을 미니홈피나 블로그의 배경 음악으로 이용하는 경우
- 음악, 동영상 및 이미지 파일, 시, 사진 등을 무단으로 웹사이트, 홈피, 카페, 블로그 등에 올리는 경우
- 웹사이트, 미니홈피, 카페, 블로그 등에 공유를 목적으로 파일 등의 자료를 올리는 경우
- 여러 경로를 통하여 수집한 저작물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목적으로 웹하드에 저장하는 경우
- 다른 사용자와 공유할 목적으로 P2P 프로그램을 통하여 저작물을 올리거나 내려받는 경우
- 음악CD 등을 여러장 복제 (일명 ‘굽기’)하여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는 행위
- 노래 가사, 스타 사진 등을 웹사이트 (예를 들어, 가수 팬클럽 웹사이트)에 올리는 행위



## ▶ 저작권 관련 Q&A

### \* 학교 수업을 목적으로 학습 지도서를 만드는 경우

**Q** 학교 수업지도를 위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여러 학습 참고서에서 내용이나 문제를 발췌하여 별도의 학습 지도서를 만들 수 있는가?

**A** 학습 참고서에 실린 내용이나 문제는 명백히 저작물이므로, 이를 발췌하여 새로운 학습 지도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작권자 허락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례처럼 학교 수업에 사용하기 위해 학습 지도서를 만드는 것은 저작권법에 의거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학습 참고서의 내용이라고 하여 모두 저작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수학 문제와 같이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전형적인 문제 또는 해설인 경우에는 학습참고서에 실려 있다 하더라도 그 학습참고서의 저자가 곧 해당 문제 또는 해설의 저자라 할 수는 없습니다.

### \* 음악 수업에 활용하기 위해 사용한 하이든의 음악

**Q** 교사가 수업 시간 중에 자신이 구매한 음반인 하이든의 첼로 협주곡을 학생들에게 들려주면서 유명한 첼리스트인 장한나의 연주곡임을 언급하였습니다. 수업 중 음악 활용은 허용되는 것일까요?

**A** 수업 시간에 음반을 재생한 것은 공연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공연권을 침해한 것이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공연권을 가진 저작권자인 음악가 하이든은 1809년에 사망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곡에 대한 저작권은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언뜻 보기에는 해당 곡의 사용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해당 곡은 현재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장한나 씨에 의해 연주되었으며 이러한 연주는 2004년에 음반회사 EMI에 의하여 음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하이드의 저작권은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장한나 씨와 EMI의 저작권접권은 존재합니다. 해당 권리인 공연권이 각 저작권접권자의 권리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우선 음반 제작자에게는 공연권이 아예 없습니다. 따라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실연자인 장한나 씨에게는 판매용 음반 공연에 대한 권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수업 중의 음반 재생은 아무 문제가 없는 올바른 사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여러 시집에서 발췌하여 편집한 것을 복사, 제본하여 배포한 경우

- Q 국어 교사가 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여러 시집에서 발췌 편집한 것을 복사, 제본하여 학생들에게 배포하였습니다. 이는 저작권 침해일까요?
- A 우선 저작권자의 권리인 복제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학생들에게 배포하였으므로 배포권 침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선 저작권법 제25조 학교 교육 목적 등에서의 이용 조항을 살펴보면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공연·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문구 자체로만 해석하자면 복제, 일부 발췌 편집까지는 허용되나 배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통설적 견해에 있어서는 해당 학급 학생들에게만 저작물을 복제, 배포하는 것도 허용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수업시간에 재생할 목적으로 복제, 배포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교육방송의 프로그램을 녹화하여 수업시간에 상영하는 경우

- Q 교육방송에서 녹화테이프를 판매하고 있는데 교육방송의 기획 프로그램을 녹화해서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활용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 A 위와 같은 행위는 저작물의 복제 및 상영에 해당하므로 저작권자의 복제권과 공연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또한 방송사업자에게는 방송물에 대한 복제권이 인정되므로 방송사업자의 저작권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수업시간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체 45분짜리 다큐멘터리 중 약 3분 정도만 녹화하여 아이들에게 보여준다면 이는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 학교 교육 목적 등에서의 이용으로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공연·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 허용될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 45분 다큐멘터리를 다 보여준다면 이는 어떨까요? 이를 저작물 전부를 보여주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경우 합법적으로 콘텐츠를 구매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저작물 전체를 복제하여 공연하는 것은 부득이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 \*만화를 말 주머니만 비우고 복사하여 수업에 이용하는 경우

**Q** 만화를 말 주머니만 비우고 복사하여 수업 시간에 활용할 경우에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할까요?

**A** 이 경우 말 주머니를 다른 내용으로 채운다면 이는 동일성 유지권의 침해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말 주머니를 비우고 해당 만화를 복사한 뒤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배포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새로운 창작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 경우에도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저작권법에서는 학교교육 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표현의 변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처럼 말주머니를 비워 학생들에게 배포하는 것은 무방하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주머니를 비우는 것을 넘어 그림 자체를 변형시키는 것처럼 작품 자체의 본질적인 부분을 변경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출판사가 학교의 시험 문제를 모아 출판하려고 하는 경우

**Q** 어떤 출판사가 여러 학교에서 그 동안 출제된 문제를 모아 문제집을 출판하려고 하는데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A** 시험 문제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된 경우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저작물을 모아서 편집저작물을 만들고자 할 때에는 당연히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이 때 생각할 것은 학교 시험문제의 저작권자는 과연 누구인가의 문제입니다. 저작권법에서는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 법인의 기획 하에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로서 그 법인 이름으로 공표된 경우 그 저작물의 저작자는 법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법인과 선생님 사이에 저작권 귀속과 관련한 계약 또는 근무규칙이 있다면 이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해당 계약이나 근무 규칙이 우선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출판사가 학교의 기출 문제를 모아 출판하고자 한다면 각 학교(경우에 따라서는 선생님)로부터 해당 시험 문제의 이용에 관한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 \* 학원가에서 학교 시험 문제지를 복사하여 판매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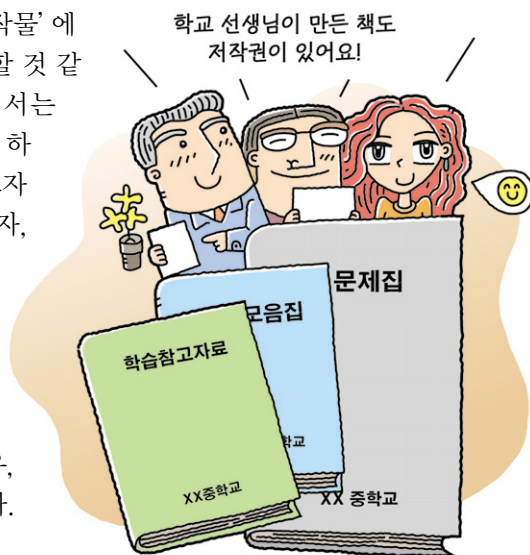
**Q** 학원가에서 학교에서 출제된 시험 문제지를 무단으로 복사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저작권 침해가 되는가? 학교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

**A**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물에 대한 정의로서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출제된 시험 문제는 창작물로서 저작물이며 그 저작권자는 대개 학교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험문제를 학원가에서 복사하여 판매하였다면 이는 명백히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학원에서 유상으로 판매한 것이 아니고 학원 수업에 활용할 목적으로 무료로 복제 배포하였다면 어떨까요? 수업 목적의 활용이 허용되는 것은 고등학교 이하의 교육기관에서의 수업 등에 한합니다. 따라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교육기관인 학원의 사용은 허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학원에서의 기출 문제 배포는 무료 배포라 할지라도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이 경우 학교는 저작권자이므로 저작권 침해 금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요청하거나 침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 학습 참고자료를 만들어 학교 이름으로 발간한 경우

**Q** 여러 선생님들이 참여하여 학습 참고자료를 만들어 학교 이름으로 발간하였다. 이 경우 학습 참고자료의 저작권자는 누구인가?

**A** 이의 판단을 위해서는 ‘업무상 저작물’에 관련된 조문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업무상 저작물이기 위해서는 “1) 학습 참고자료는 학교의 기획 하에 작성되어야 한다. 2) 학습 참고자료의 작성은 학교 업무에 종사하는 자, 즉 선생님이어야 한다. 3) 학습 참고자료는 선생님이 학교 업무상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 4) 계약 또는 근무규칙에 저작권의 귀속에 대한 특별 규정이 없어야 한다.”는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학교가 저작권을 가진다 할 것입니다.





‘여러 선생님들이 참여하여 학습 참고자료를 만들어 학교 이름으로 발간’ 한 경우, 학습 참고자료를 만드는 것이 선생님의 ‘업무’ 인가를 고려해볼 때 학생에 대한 교육은 선생님의 업무라 할 수 있으나 학습 참고자료를 만드는 것 자체는 ‘업무’에 도움을 주는 부가행위는 될지언정, 선생님의 ‘업무’라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학교 명의로 공표되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은 해당 학습 참고자료를 작성한 선생님들에게 귀속된다 할 것입니다.

### \* 학교 홈페이지에 학습자료를 게재하여 다운로드 받게 한 경우

**Q**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나 학습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 홈페이지에 학습자료를 게재하는 것은 허용되는가?

**A**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자료를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행위는, ‘전송’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다운로드를 허용하는데 문제가 없기 위해서는 다운로드를 허용하는 행위가 전송권 침해가 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의 판단을 위해서는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다운로드를 허용하느냐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자료가 다운로드 허용되느냐가 관건이라 할 것입니다. 즉, 학교 선생님이 손수 창작하신 자료를 학교 홈페이지에 업로드하신 경우라면 저작권자가 전송을 허용한 것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타인이 창작한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업로드하여 다운로드를 허용한다면 이는 전송권의 침해가 된다 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자료의 다운로드 허용 목적이 학생들이 해당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수업 시간에 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저작권법에서 허용하는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송’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작권법은 온라인과의 연계교육을 고려하여 학교 교육 목적을 위하여 전송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업 목적과 관련이 없이 다운로드를 허용하는 경우라면 저작권자의 전송권 침해가 됩니다.

## \* 학교 홈페이지 자료실을 통해 불법 복제물을 주고받는 경우

**Q** 학교 홈페이지의 자료실이나 게시판을 통해 학생들이 불법 복제물을 주고받을 경우에 학교가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가?

**A** 학교 홈페이지의 게시판 등을 통한 불법 저작물의 교환 사실을 알고 해당 저작권 침해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복제, 전송을 중단시킨다면 학교에 인정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 침해 게시물의 복제, 전송을 중단시키고자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학교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책임은 면제됩니다. 한편 불법 복제물의 저작권자가 학교에 자신이 진정한 저작권자임을 증명하고 저작권 침해물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며 해당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할 때, 학교가 그 삭제요청을 받아들여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복제, 전송을 중단시킨 경우에도 학교에 인정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학교가 학생들에게 홈페이지를 통해 불법 복제 저작물을 교환할 것을 권장하거나 편의를 제공한 경우라면 그 경우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지위를 인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저작권 침해의 교사(敎唆) 또는 방조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 각종 글짓기 또는 공모전에 제출된 글의 저작권의 경우

**Q** 교육인적자원부 및 여러 기관에서 각종 글짓기 또는 논문 공모전을 개최할 경우, 제출된 글 또는 논문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는 것일까요?

**A** 공모전 개최 안내문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저작권은 해당 글/논문의 원저작자에게 귀속하게 됩니다. 다만 공모의 목적이 우수 작품을 선별하여 이를 공중에 배포하여 열람하게 하는데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해당 글에 대한 사용권, 특히 복제권, 전송권, 배포권 등의 행사를 공모전 주최자에게 허락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권리 행사의 허락은 수상작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고 제출된 모든 작품에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공모전의 경우 저작권 및 이용권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규정은 공모전과 관련한 일종의 약관으로 작용하여 저작물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약관에 동의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제출된 저작물의 저작권은 공모전 주최측에 귀속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저작인격권(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은 일신전속적인 권리로서 양도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주최자가 제출된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가진다는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원 저작자로부터 권리를 박탈하여 주최자에게 저작권을 귀속시킨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고, 저작권은 원 저작자에게 계속 유지되며 아울러 주최자에게도 일부 권리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 유료 인터넷 교육사이트에서 자료를 다운로드 받은 경우

**Q** 유료 인터넷 교육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자료는 나의 것인가?

**A** 인터넷 교육 사이트에서 유료로 다운로드 받은 자료가 나의 것이 된다면, 즉 내가 저작권자가 된다면 나는 해당 저작물을 마음대로 복제, 전송,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그러한 권리를 내가 획득하게 되는 것일까요? “유료로 결제한 경우라면 해당 자료를 산 것이므로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틀린 생각입니다. 유료 결제를 통하여 얻게 되는 것은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 내지 소유권이 아니라 단순히 해당 저작물에 접근하여 내용을 열람하고 이용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즉, 유료 결제를 통하여 얻게 되는 것은 저작권이 아니라 해당 자료의 사용권, 좀 더 구체적으로는 복제권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료 사이트에서 자료를 다운받았다 하더라도 이 자료의 저작권은 해당 사이트 내지 원 저작자에게 존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료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타인에게 전송, 배포하는 경우는 저작권의 침해가 되는 것입니다.

## \* 저작권을 침해했을 때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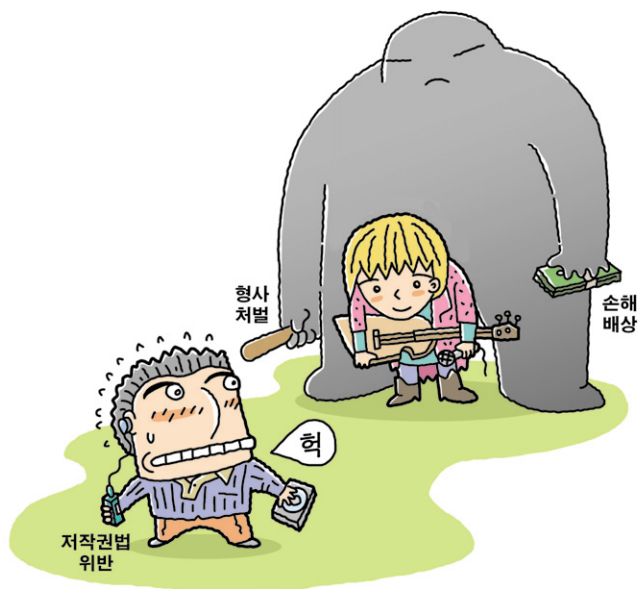
**Q** 저작권을 침해하면 곧바로 처벌을 받는 것인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은 친고죄로 되어 있어 저작권자가 고소하여야 비로소 침해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침해 행위를 하였다고 곧바로 범법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안 저작권자가 형사고소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에 책임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언제나 고소될 수 있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므로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저작권을 침해해서 형사 처벌을 받는 경우

Q 저작권을 침해하게 되면 어떤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인가요?

A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이외에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방송·전시·전송·배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소권자(저작권자 등)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저작권이 침해됨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형사 고소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나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거나 불법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저작권위원회 교육연수팀 (☎ 02-2669-9990)

청소년저작권교실홈페이지([1318.copyright.or.kr](http://1318.copyright.or.kr))를 참고하세요.